산업통상자원부 「제조업 르네상스」	보도참고자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9. 11. 25-26 부산

2019년 11월 19일(화) 15: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9. 11. 19(화)	담당부서	산업정책과
담당과장	이원주 과장(044-203-4210)	담 당 자	홍충완 서기관(044-203-4212)

산업부,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성과창출과 투자활성화에 주력

- 성윤모 장관, 신산업 분야 '제조업 르네상스 Round Table 회의' 개최 -

- 연말까지 주력산업, 산업지능화 등 분야별 순차적 개최 예정 -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11.19(화) 시스템반도체・미래차/수소・바이오・친환경 선박・이차전지・로봇・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업종별 대표기업 CEO**들과 '**제조업 르네상스 Round Table**' 회의를 개최했다.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19.11.19.(화) 15:00~16:30 / 여의도 GLAD 호텔 2층 B·C룸

○ 참석 : (산업부) 장관(주재), 산업정책실장 등
(업계) 정은승 사장(삼성전자), 공영운 사장(현대차), 김형기 부회장(셀트리온헬스케어), 김종현 사장(LG화학), 강귀덕 사장(로보스타), 김희철 사장(한화큐셀), 김형관 전무(현대重)

□ 이날 회의는 現 정부의 반환점을 지나고 새로운 한해를 앞둔 시점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과 **업종별 대책**들의 **추진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보완점** 및 **향후 방향** 등에 대한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기・교역 침체 등 어려운 대외 여건과 보호무역주의, 4차 산업혁명 등 경쟁환경 변화 속에서도 **제조강국 대한민국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민・관이 함께 더욱 노력**해야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 ①**제조업 르네상스 성과 및 정책제언**, ②**투자 활성화**를 위한 **애로 및 건의**, ③**협업과 공동노력**을 통한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성윤모 장관은 "매우 어렵고 엄중한 대내외 여건 하에서 민·관이 합심하여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로봇, 수소,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창출**과 자동차 부품, 조선, 섬유패션 등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업종별 추진전략**을 제시했고, 성과도 있었다"면서,

① 정부의 대책과 함께 민간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에 **35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계획**으로 화답한 것,

* (시스템반도체) '30년까지 133조원('19.4), (미래차) '30년까지 60조원 ('19.10), (바이오헬스) '30년까지 40조원('19.5), (디스플레이) '25년까지 13.1조원 등

② **위기 극복 노력**을 통해 **자동차, 조선** 등 **어려움에 처했던 주력업종이 반등**의 전기를 마련한 것,

* 완성차 기준 19.1~9월 생산 0.5%↑, 수출 1.2%↑(전년동기 대비)
* '16년 수주량 222CGT에서 '18년 1,308CGT로 대폭 회복하며, 세계시장 41% 점유(1위)

③ **일본 수출규제**에 철처히 대응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확고한 기틀을 마련**한 것 등을 주요 성과로 평가하였다.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전부개정안 발의('19.9)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출범('19.10), 특별회계 신설('20년 2.1조원)

□ 성 장관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문의 수출·설비투자·고용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그간 추진해온 정책들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미흡한 부분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보완**하겠다"면서, **다음의 3가지를 강조**하였다.

① 민·관이 함께 수립해온 **계획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

② 민간의 **투자계획이 적기에 이행**되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 투자지원단 운영, 전담관 지정 확대** 등을 통해 **투자 애로를 1:1로 밀착 지원**하고,

- 균특법, 외촉법, 유턴법 등 **투자활성화 법령을 정비**하여 국내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③ 업종별 생태계 내의 **기업간 협업과 공동 노력을 지원**하여 공급망 안정성과 경쟁력 확보 관점에서 **생태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 한편, 이날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은 **'미래 모빌리티 협업 생태계 전략', '조선산업 생태계 협업 전략'**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 성 장관은 "기술패권주의, 보호무역주의, 생태계간의 경쟁 확대 등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구축**을 적극 지원하여 **공동 기술개발, 공급망 연계 등 협력이 확대**된 것은 의미 있는 전환점이었다"면서,

○ "생태계 내의 **선도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내 공급사들을 발굴**하고, **기업간 협업과 공동 노력**을 통해 **대내외 리스크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태계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발표한 **우수사례가 他 업종에도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산업부는 **신산업** 분야를 시작으로, 추후 **주력산업**, **산업 지능화** 분야 등 **기업과 두루 소통**하면서 **현장과 호흡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첨부 1. 회의 개요
첨부 2. 산업부 장관 모두말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홍충완 서기관(☎ 044-203-42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회의 개요

1. 추진 목적

○ **업종별 대표 기업 CEO**들과 함께 **제조업 르네상스 및 업종별 대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 모색('20년 업무계획에 반영)

2.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9.11.19(화) 15:00 ~ 16:30, 여의도 GLAD 호텔 2층 B·C룸**

○ **참석자 : 산업부 장관**, 산업정책실장, 정은승 사장(삼성전자), 공영운 사장(현대차), 김형기 부회장(셀트리온헬스케어), 김종현 사장(LG화학), 강귀덕 사장(로보스타), 김희철 사장(한화큐셀), 김형관 전무(현대重)

○ **토의 주제** : ①**제조업 르네상스**에 대한 정책 제언, ②**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의, ③협업과 공동 노력을 통한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

3. 세부 진행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5)	**도착 및 사진촬영**	
	15:05~15:10('5)	**모두 말씀**	**산업부 장관**
발표	15:10~15:35('25)	❶제조업 르네상스 추진현황 및 성과('5) ❷미래 모빌리티 협업 생태계 전략('10) ❸조선산업 생태계 협업 전략('10)	산업정책관 현대차 현대重
토의	15:35~16:25('50)	**자유 토론**	
	16:25~16:30('5)	**마무리 말씀**	**산업부 장관**

첨부2 산업부 장관 모두말씀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입니다.

지난 11.9일을 기점으로 현 정부가 반환점을 지났고,
한 달여 후면 또 다시 새로운 한해가 시작됩니다.

그간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제조강국 대한민국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온 만큼,
이제는 지금까지의 추진 성과를 되짚어보고,
속도감 있는 이행과 성과 창출에 매진할 시점입니다.

사실 오늘 회의는
'말하기'보다는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간의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감에 있어
현장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신산업 분야의 대표 기업인들의 진솔한 의견과 제언을 경청하고,
현장과 호흡하는 정책을 만들고자 모셨습니다.

오늘 신산업 분야를 시작으로,
추후 주력산업, 산업 지능화 분야 등
기업인 여러분들과 두루 소통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성과 및 반성

글로벌 경기 하락과 교역 침체 등
대외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보호 무역주의,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의 변화 등
경쟁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산업의 체질을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어려운 과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통해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 등 산업구조 혁신전략과
자립화·초격차·재도약·탈바꿈 등
업종별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관이 합심하여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로봇, 수소,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창출과
자동차 부품, 조선, 섬유패션 등 주력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업종별 전략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일본 수출규제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대표기업들을 중심으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에
350조원 이상의 대대적 투자계획을 발표하여 화답해 주셨습니다.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전기차, OLED 등 미래성장품목이
기존 수출 주력 품목들을 대체해 나가고 있고,
세계 최고수준의 빠른 속도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의 위기극복 노력으로
자동차의 생산과 수출이 다소 회복되고,
조선이 7년만에 세계 1위를 탈환하는 등
어려움에 처했던 일부 주력업종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에 철저히 대응하여 혼란을 최소화했고,
우리 산업의 고질적 문제였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확고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설비투자, 고용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제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범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해 왔지만,
기업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향후 추진 과제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 정책들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미흡한 부분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조업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분야의 업종별 전략 등
우리 산업의 체질 개선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민·관이 함께 수립해온 계획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
제조업 르네상스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지속 보완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시스템반도체 133조원, 미래차 60조원, 바이오 40조원 등
기업들에서 발표해 주신 투자 계획이 적기에 이행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민관합동 투자지원단 운영, 전담관 지정 확대 등을 통해
입지·인력·자금·규제 등 투자 애로해소를
1:1로 밀착 지원하는 한편,
균특법, 외촉법, 유턴법 등 투자활성화 법령을 정비하여
국내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업종별 생태계 내의 기업간 협업과 공동 노력을 지원하여
생태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최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수요-공급기업간의 협력모델 구축을 적극 지원하여
공동 기술개발, 공급망 연계 등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산업생태계가
기술패권주의, 보호무역주의,
개별 기업이 아닌 생태계간의 경쟁 확대 등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주도할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간의 익숙한 관행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공급망 안정성과 경쟁력 확보 관점에서
비즈니스 전략을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Value chain의 최상단에 있는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내 공급사들을 발굴하고,
생태계 내의 기업간 협업과 공동 노력을 통해
대내외 리스크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태계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발표해주실
미래차와 조선 부문 생태계 협업 전략은
다른 업종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도 업종별 라운드테이블 개최 등
현장과의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4. 마무리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회의는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각 기업과 업종을 대표하시는 분들인 만큼,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의,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롭고 생산적인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